

영국 연극계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문제의식

글 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영국인이 아니더라도 가끔 미국을 포함해 유럽을 오가며 활동하는 작가, 연출가 또는 연극학자들이 오늘날 연극에 대해 얘기하는 몇 가지 단상이 있다. '연극계 현안' 이라고 하기엔 감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동된 '문제의식' 썸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이번 달 '세계연극'엔 연극을 사랑하는 관객이나 연극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추한 현실로, 연극이 그 뿌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의 연극은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가?

연극 무대에 올랐던 드라마틱스트의 역사는 우리에게 '극장이란 인간들이 모여 그들이 체험한 경험의 본질을 토론하고 점검하는 장이었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혼란들과 다양한 모습들이 영국의 연극 무대에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근 언급했던 사람은 의외로 영국인이 아닌 1)로버타 레비토우(Roberta Levitow)라는 미국의 연출가이다. 그녀에 따르면 사회는 환경문제, 유전자 조작, 가상현실, 문화지배, 현대 의학의 도덕성, 테러리즘, 인종, 성(sexual) 의식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현상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텔레비전, 광고 등이 다루게 내버려두면서 연극이란 장르는 이같은 주제를 좀처럼 무대에 끌어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영국에서 볼 수 있는 공연들은 어떤 소재들일까? 한때 잘 나가던 코미디 작품의 리바이벌과 셰익스피어 같은 고전, 그리고 그리스 비극. 가끔 등장하는 신작들도 소재를 나열해보면 흥행의 안전함을 고려한듯한 가족, 연애, 성 등 연극이 현실을 외면해버린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니, 이젠 극장으로 간다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발길이 되어버렸다.

연극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가?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연극인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연극계의 현실보다 영국 형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 단정 지을 수 없음이 아쉬울 뿐, 오늘날 연극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의 현실은 영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전자상거래, 디지털 이미지, 그리고 사이버 시대 가운데 홀연히 살아가는 유리 세공(불어서 병을 만들던)업자 또는 아직까지 실과 바늘로 가죽구두를 제작하는, 시대에 뒤쳐진 기술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량생산체제와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기술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돌을 깎아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고대의 장인이 된 듯한……。 한때, 제사를 지내던 단상 가운데 모여 얘기를 전해주던 스토리텔러로 높이 추앙받던 시기는 이제 대학 도서관에서 박제처럼 장식된 고서에서의 기록으로나 볼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작가(지망생을 포함)들과 연출가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로 흡수되었다. 특히 런던 무대에 선 배우들은 그들을 보고 있는 몇 안 되는 관객에 집중하기보다는 혹 그중에 있을지도 모를 영화, 방송국 캐스팅 담당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연극이 가진 이상은 이제 현실보단 우리 기억 속에 더 뚜렷이 남게 되었다.

실험극을 만나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1960년대 유럽과 미국 연극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사회적 아방가르드를 이루었고 당대의 관객들은 이에 환호했었다. 관객들 대부분은 젊고 뜨거웠으며 마치 극장은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실험의 장이었다고 로버타 씨는 회고한다. 거의 모든 연극이 시장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에 당혹스럽기도 하단다. 공연 계획, 연습 과정, 극장 운영, 그리고 실제 공연이 모두 돈과 연결되어 생각되고 있는 점은 연극이 예술가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변모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마치 연극 제작 과정이 시장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활동이 되어버렸다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연극이

1)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예술위원회 NEA 최고 연출상(시애틀레퍼토리극단)을 받은 미국의 연출가

스스로 고통 받고 있었을 때 관객의 무관심은 커져 갔다.

리즈대학(UL)의 리네프 헌터(Lynette Hunter)교수는 영국 연극에서 사라진 도전의식과 새로움의 근거를 1980년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와 그 연장선에 있는 1990년대 존 메이저(John Major) 정부가 가졌던 예술에 대한 보수적 성향으로 보고 있었다. 비록 1980년대 영국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금 축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던 새로운 밀레니엄을 넘긴 시점에 대체 오늘의 젊은 연극인들의 실험 정신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연극계 인재들도 점점 사라져간다?

예술에 투입되는 자금 지원 가운데 복권사업(National Lottery)이 있지만 이 기금 혜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나머지 반(50% matching grant)을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실제 영국의 콘택트(Contact) 극장과 볼턴 옥타곤(Bolton Octagon) 극장은 운이 좋아 복권기금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절반의 금액을 다른 곳으로부터 채울 수 없어 파산신청과 지방 투어 공연의 수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렇게 극장이 파산하면 그곳에서 일했던 배우, 연출, 작가들은 대개 오페라, 영화, 텔레비전으로 옮겨간다. 가끔 한 번에 많은 관객을 접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며 이동한다고 하지만 오페라는 연극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며, 영화나 텔레비전은 전혀 다른(조건이 좋은)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에든버러 트래버스(Edinburgh Traverse)극장의 예술감독인 피터 리히텐펠스(Peter Lichtenfels) 씨는 대개 이런 경우의 이유를 여성 인력이 극장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들었고 재미있게도 이와 관련하여 극장의 임금 저하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여배우, 작가, 연출가들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잘 참아내며 고정비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조차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러고 보면 공연계와 함께 근대에 이르러 프로페셔널한 직업의 세계에서 여성이 소개되면서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 사례(컴퓨팅, 호텔과 같은 서비스업)를 찾아보는 것이 어렵진 않다 하겠다.

최근 영국 정부가 또 다시 지원금을 축소할 가운데 부족한 자원과 관객들의 무관심 그리고 창작을 담당하는 연극인들 모두의 실험정신의 부재가 '사회에 정말 연극이 필요한 것일까'라며 연극의 유용성을 의심하게 하는 큰 병을 만들고 있다. 이는 비단 영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로가 다시 침체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적시에 원인을 분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장르 자체의 영향력 약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The Woman in Black)
©ILOVESTAGE



Sex With Strangers ©ILOVESTAGE



로열세익스피어 컴퍼니 (MUCH ADO ABOUT NOTHING) ©Manuel Harlan